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충남도 우수' 차지

- 충남도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등에서 SA등급

지난 3월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 대표 강지원)에서 만선5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공개 및 내용 평가에서 충청남도가 최우수인 SA등급(평가등급: SA, A, B, C, D)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약속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공약실천계획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각계 각종의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약실천계획서 부문별 평가항목으로는 ①종합성 ②개별구성 ③주민소통 ④웹소통 ⑤공약일치도 등이며, 총점이 75점을 넘은 우수 자치단체로 충청남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선정 발표하였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부문별 평가 결과 '개별구성' 부문, '주민소통' 부문, '웹소통' 부문 등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

위와 같이 여러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충청남도는 만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확립되는 과정을 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였

으며 공약실천계획서로 구체화되면서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4월 첫 삽

- 신도시에서 예산수덕사IC를 연결하는 8.4km에 1,230억원투자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까지 연결하는 추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을 3월중에 착수하여 오는 2013년 6월 개통을 목표로 4월 첫 삽을 뜰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추진입도로 8.4km(4차로)개설에는 3개년간 총 1,23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道內 전 지역에서 신도시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산수덕사IC에서 신도시까지 현재의 일반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거리가 16.7km에서 8.4km로 8.3km가 단축되어 내포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됨은 물론, 주변 예산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말 이전하게 되는 충남도청사는 지난해까지 7층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조성, 하수처리시설, 자동집하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추진입도로 개설공사까지 착공됨에 따라 도청이전사업들이 가시화되면서 내포신도시의 토지분양 및 아파트분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일제고지 · 고시 실시

- 3월부터 7월 29일까지 건물소
유자와 점유자를 대상으로

충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도민 개개인에 대하여 3월부터 7월 29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하여 이를 새주소로 확정하고 2012.1.1부터 전면사용하기로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100여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23번지가 있거나, 하나의 지번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 많은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등 위치찾기가 어려웠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우리 길을 찾는

연 60만여명의 방문 외국인들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구조기관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도민생활의 안전과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그 동안 약 31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명주소체계의 완벽한 도입을 위하여 천안시 등 16개 시·군 8,630km² 숲 지역에 도로명주소 DB와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2,715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23천개의 도로명판과 430천여동의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이며,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도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충남관광 정보를 한눈에...

- 충남도, QR코드 활용,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 실시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충남의 주요 관광정보를 만날 수 있다!!

충남도는 2월 23일부터 충남의 주요 관광정보를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 주소는 <mtour.chungnam.net>이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웹은 충남의 관광지, 축제/체험, 관광코스, City 투어, 인삼엑스포 등 크게 다섯 가지의 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광코스 메뉴를 선택하면 백제문화권 등 6개 권역별 관광코스를, City 투어코스를 클릭하면 천안 등 7개 시·군의 투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삼엑스포 메뉴에서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웹 서비스가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펴내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이 최근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간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내재적 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농촌주민의 주체적 노력들 가운데 대표적 사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우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온 저자는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당사자인 농촌주민과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역량만큼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 세상을 바꿀 주체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